

석사학위논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지도교수 고명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미숙

2003년 8월

#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지도교수 고 명 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미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3년 7월 일

심 사 위 원 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문 초록>

##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김 미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고 명 규

이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사회적 능력 발달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 능력은 성별과 부모의 학력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조사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7개교 21학급 6학년생 758명 대상으로 질문지로 조사하여 그 중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편부·편모인 경우와 불완전한 응답을 한 질문지 134부를 제외한 624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Grych와 그의 동료들(1992)이 개발하고 권영옥·이정덕(1997)에 의해 검증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와 O'Malley(1977)가 개발하고 민영순(1995)이 수정하여 사용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하위영역별로 높게 지각한 30%인 집단을 상위집단으로, 낮게 지각한 30%인 집단을 하위집단으로

---

\* 본 논문은 200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정의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자료처리 방법으로는 SPSS/PC<sup>+</sup>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검증과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은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 정도는 남아가 여아보다 부부갈등 내용이 자녀 자신과 관련되어 있고 자기 탓이라고 더 비난한다.

둘째, 부모의 학력에 따른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의 정도는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원만히 해결된다고 지각하고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은 부부갈등이 심각하지 않으며 원만히 해결된다고 보며 갈등 상황에서 두려움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셋째, 성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여아가 남아보다 교사에 대한 애정은 더 많이 표현하나 쉽게 당황하고 주위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 한다.

넷째, 부모의 학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매사에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협조적으로 집단을 잘 이끌어 간다. 즉,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부모의 영향이 있다.

다섯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하위영역별로 높게 지각할수록 유능성과 지도성은 떨어지고 방해성과 불안정성은 높았다. 즉, 새로운 일에 흥미가 없고 매사에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으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거나 방해하고 자주 깜짝 놀라거나 쉽게 당황하며 불안하다.

여섯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은 떨어진다.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한 아동들이 매사에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으며 수동적이다. 또래관계에서는 비협조적이며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고 불안하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사회적 능력 발달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부간의 갈등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능력 발달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가정환경의 중요성, 특히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	3
3. 용어의 정의 .....	4
4. 연구의 제한점 .....	5
II. 이론적 배경 .....	6
1. 부부갈등의 개념과 특성.....	6
2. 사회적 능력의 개념과 특성 .....	12
3. 부부갈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	16
III. 연구 방법 .....	24
1. 연구대상 .....	24
2. 측정도구 .....	25
3. 자료처리 .....	29
IV. 결과 및 해석.....	30
V. 요약, 결론 및 제언 .....	55
1. 요약 .....	55
2. 결론 .....	62
3. 제언 .....	64
참고문헌 .....	65
Abstract .....	71
부록 .....	74

## 표 목 차

<표Ⅲ-1> 연구 대상 현황 .....	24
<표Ⅲ-2>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26	26
<표Ⅲ-3> 아동의 사회적 능력 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28	28
<표Ⅳ-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성별 차이 검증 .....	31
<표Ⅳ-2>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부의 학력별 차이 검증 .....	32
<표Ⅳ-3>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모의 학력별 차이 검증 .....	34
<표Ⅳ-4>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성별 차이 검증 .....	36
<표Ⅳ-5>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부의 학력별 차이 검증 .....	37
<표Ⅳ-6>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모의 학력별 차이 검증 .....	39
<표Ⅳ-7> 부부갈등의 빈도 정도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 검증 ...	41
<표Ⅳ-8> 부부갈등의 강도 정도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 검증 .....	42
<표Ⅳ-9> 부부갈등의 해결 정도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 검증 ...	44
<표Ⅳ-10> 부부갈등의 내용 정도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 검증.....	45
<표Ⅳ-11> 부부갈등의 자기비난 정도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 검증 47	47
<표Ⅳ-12> 부부갈등의 지각된 위협 정도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 검증 48	48
<표Ⅳ-13> 부부갈등의 대처효율성 정도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 검증 50	50
<표Ⅳ-14> 부부갈등의 삼각관계 정도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 검증 51	51
<표Ⅳ-15> 전체 부부갈등의 정도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 검증 ...	53

## 그 립 목 차

[그림 Ⅱ-1] 인지 상황적 구조 .....	11
--------------------------	----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부란 성장과정, 가정환경, 교육배경 등 생활환경과 경험이 다른 두 남녀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것으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호보완적 관계임과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인간관계다(박민숙, 1985).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의 기대와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될 때에는 신뢰하고 협조하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어느 집단보다 기본적인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 가정 내의 중심은 부부로서 부부간의 갈등은 가정 내에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2년도 제주도 이혼 건수는 1,962건으로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혼한 부부의 73%가 1~3명의 자녀가 있고 이혼 사유도 성격 차이와 가족간 불화가 52%로 부부갈등을 잘 극복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며 이로 인해 부부갈등에 노출되는 자녀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부부갈등은 가족관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은 인간이 탄생하여 최초로 맞는 사회이고, 가족은 인간이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성원이므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최초의 집단은 가족이며 그 장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환경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동의 사회적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아동 발달 초기의 심각한 부부갈등은 부모-자녀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훗날 아동의 적응 곤란을 유발하는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아동을 지도하다 보면 가정 문제의 영향으로 또래 집단에서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어 걸들거나 비협조적이며 불안하여 문제 행동까지 야기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부갈등은 자녀에게 그 자체가 커다란 스트레스 자극이자 정서적 위협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이를 자주 목격하고 심각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저해하게 되고, 비효율적인 대처 반응을 초래하여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녀는 부모가 서로의 대립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모델링 하여 또래와의 대립이 생겼을 때 공격적인 행동으로 대처하는 등 문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Grych 와 Fincham, 1990; Davies 와 Cumming, 1994).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박수잔(1996)은 부모가 심하게 싸울 때 자녀는 분노, 슬픔, 걱정, 수치심 그리고 무력감을 더 많이 느끼고 부모간의 언어적 갈등보다 신체적인 갈등과 위협이 더해진 갈등이 더 높은 수준의 문제와 더 낮은 수준의 사회적 기능과 연관된다고 하였고, 조영란(1993)은 부부갈등을 자주 목격할수록 자녀의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과 학교에서의 성취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부부갈등의 내용이 자녀의 양육문제에 관한 것일 때 자녀의 부적응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며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를 해치게 되어 자녀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김소향, 1994; 이향선, 1999; 최연숙, 1999), 류승희(2000)는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의 자아개념이 낮다고 하였다.

또한 부부갈등의 실제 양상보다 아동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느냐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Grych와 Fincham,1993; 권영옥 · 이정덕, 1996; 박수잔, 1996).

이 연구들은 부부갈등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문제 행동, 학업성취 및 자아개념에 관계된 연구들이고 아동의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인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보다는 자녀가 지

각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이에 따른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성별과 부모의 학력에 따라 부부갈등의 지각과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능력 상호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 능력은 성별과 부모의 학력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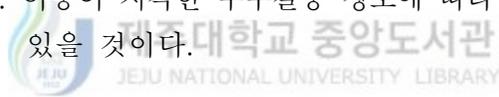
<가설 I>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성별과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성별과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하위영역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빈도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유능성, 지도성, 방해성, 교사에 대한 애정, 불안전성)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Ⅲ-2.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강도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Ⅲ-3.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해결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Ⅲ-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내용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Ⅲ-5.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자기비난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Ⅲ-6.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지각된 위협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Ⅲ-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대처효율성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Ⅲ-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삼각관계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Ⅲ-9.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용어의 정의

#### 가.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부부간의 상호작용에서 상반된 목표와 욕구, 기대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립으로 정의하며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은 아동 자신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가를 질문지로 측정하여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한 30%인 집단을 상위집단, 낮게 지각한 30%인 집단을 하위집단으로 삼았다.

#### 나.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적응 능력으로서 매사에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처리하는 능력,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고 집단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

와 협조적인 태도, 교사와 원활한 상호작용, 안정감을 하위 능력으로 구성한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제주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6학년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시·도와 전국에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둘째,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만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얻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 범위 내에서 질문지에만 의존하였다.



##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부부갈등의 개념과 특성,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적 능력의 개념과 특성, 부부갈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부부갈등의 개념과 특성

부부관계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이라는 사회제도에 의해서 관계를 맺게 되는 비혈연적이기는 하나 가장 밀접한 관계이며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그러나 부부는 성장과정, 가정환경, 교육배경 등 생활환경과 경험이 다른 남녀의 결합이므로 결혼생활의 가정에서 상호간의 가치관과 지적 판단의 차이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심리학적 의미의 갈등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상호 배타적인 충동, 동기, 추진력, 혹은 사회적 요구로 겪는 정신적 싸움을 의미한다. 또한 Wilmont와 Wilmont은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표출된 투쟁이라고 하였다. 이때 당사자들은 상대방과 목표가 상충하거나 자신의 몫이 줄어들거나 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목표를 방해한다고 지각하여 발생하게 된다(류승희, 2000, 재인용).

유영주(1992)는 갈등은 두 개 이상이 대립하는 충동이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여 해결에 곤란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생활에 있어서 빈번히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갈등은 학자에 따라 부정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하고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Parson(1949)은 구조기능주의 입장에서 갈등은 일

탈행동이라고 하였고 갈등이 그 사회를 붕괴시키고 오염시키는 질병이 될 수 있다고 한 반면, Coser(1956)는 갈등은 더 이상 질병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조직의 제도화된 유형들의 생동성과 융통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사회체계의 지속적인 적응과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여 갈등의 긍정적인 가치를 주장하였다(권영옥 · 이정덕, 1997, 재인용).

가족에 관한 연구에서 Sprey(1979)는 갈등이론을 가정에 적용시켜 갈등이란 가족성원들이 최소한 자원, 논쟁이 되는 수단, 상반된 목표를 놓고 대결하는 것이라 하였고 Galvin과 Brommel(1986)은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상반된다고 믿는 과정이며 그것은 지각상의 문제와 태도나 가치의 차이, 개인의 자존감이 위협될 때에는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Coleman(1984)은 부부갈등을 부부간의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김갑숙(1991)은 부부상호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자원이나 상충되는 목표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을 부부갈등이라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부부갈등은 부부간의 상호작용에서 상반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대립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부부갈등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부부 갈등을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Rice(1979)는 갈등의 발생원인에 따라서 개인내적 심리적 갈등, 개인내적 육체적 갈등, 개인간 심리적 갈등, 상황적 또는 환경적 갈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개인내적 심리적 갈등(intrapsychic conflict)은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 즉, 개인내부에 있는 상반된 충동 및 본능과 가치 등에 의해서 개인과의 내적 싸움 때문에 발생한 내부 긴장에서 야기되는 갈등이다.

둘째, 개인내적 육체적 갈등(intrasomatic conflict)은 육체적인 것에 원인이 되어 긴장이 야기되는 것을 말한다. 육체적인 피로나 질병은 비이성적인 것, 정서적 혼란, 성급함, 왜곡된 이성 등을 초래하게 된다.

셋째, 개인간의 심리적 갈등(intrapsychic conflict)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

나는 갈등으로 개인의 욕구가 상대에 의해 좌절될 때 공격성, 회피, 해체 등 반복되어 발생한다. 개인내적 심리적 갈등의 원인이다.

넷째, 상황적 또는 환경적 적응(situational or environmental conflict)은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겪게 되는 갈등을 의미한다. 가계생활조건, 사회적 압력이나 가족 기능을 방해하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이다.

Collins(1971)는 갈등이론의 기원을 Freud에 두고 있는데 프로이드는 갈등이 가정 생활의 주요한 두 가지 차원 즉, 남성과 여성, 어른과 아이 사이의 성적인 투쟁과 권력 투쟁에 있다고 보았다.

갈등을 부부관계에 적용한 Sconzoni(1972)는 부부갈등을 부부관계의 본질에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갈등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본질에 관련된 갈등은 기본적인 가치와 목표를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반박해서 생기는 갈등이다.

둘째,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갈등은 부부가 관계 속에서 권리나 특권 분배의 문제 중 일부를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혹은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때 일어난다(최연숙, 1999, 재인용).

Coleman(1984)은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5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 이성적 갈등(rational conflict)과 비이성적 갈등(irrational conflict)으로, 이성적 갈등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서론의 의견차이로 생기는 갈등으로 이는 협상과 타협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는 갈등을 말하며 비이성적 갈등은 각자의 특수한 개성으로 생기는 갈등을 말한다.

둘째, 표면화된 갈등(overt conflict)과 내재적 갈등(covert conflict)으로 표면화된 갈등은 두 사람 중 어느 한사람이 갈등을 표면화 시키면서 야기되는 갈등을 말하며, 내재적인 갈등은 표면화시키지 않고 숨기거나 감추어서 의사소통의 부족, 정신신체 반응, 즉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갈등을 말한다.

셋째, 급성적 갈등(acute conflict)과 만성적 갈등(chronic conflict)으로 급성적 갈등은 단기간에 형성되었다가 소멸되는 갈등을 말하며 만성적 갈등은 만

족스러운 해결이 되지 못하며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생기는 갈등을 말한다.

넷째, 개인적 갈등(personal conflict)과 대인적 갈등(interpersonal conflict)으로 개인적 갈등은 자기 자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말하며 대인적 갈등은 대인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말한다.

다섯째, 원초적 갈등(basic conflict)과 비원초적 갈등(nonbasic conflict)으로 원초적 갈등은 배우자의 부정과 같이 결혼의 계속성을 위협할 만한 갈등을 말하며 비원초적인 갈등은 결혼의 지속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갈등을 말한다.

이상의 각 학자들에 따른 갈등의 유형 분류를 종합하여 보면 부부 관계 내에서의 갈등과 환경과의 작용에서 빚어지는 갈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표현 양식도 다양하여 내면적일 수도 있고 외현적인 형태를 띠 수도 있고 건설적인 것부터 파괴적인 것까지 있다.

부부는 서로 성장배경과 경험, 가치관 역할기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시각과 개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부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owrew(1927)는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경제적 조건, 건강조건, 개인적 조건, 사회적 조건을 제시하였고 Mitchell(1982)은 재정문제가 가장 빈번한 부부갈등의 문제였으며 가사관리, 성격불일치, 성적적응, 가사분담, 자녀문제, 레크레이션 문제의 순서로 갈등의 요인을 제시하였다(류승희, 2000, 재인용).

Macmillan(1969)은 불평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갈등을 크게 대인적 관계 문제, 성격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문화 배경문제, 자녀문제, 건강문제, 시댁문제의 일곱 가지 범주로 나누었으며(이향선, 2000, 재인용) Rice(1979)는 사회적 상관요인(자위, 소득, 교육문제 등)과 관계 요인(애정, 존경, 관계의 평등, 성적관계, 의사소통, 자녀 등), 개인적 상관 요인(건강, 종교, 가치관, 취미 등)으로 분류하였다.

가족 심리 치료학자인 Bowen은 부부갈등의 원인을 정서적·정신적 문제,

신체적 문제, 자녀문제에 있다고 하였다(김경자, 1978, 재인용).

한국 가족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길미령(1990)은 부부의 연령, 교육수준, 가족생활주기, 가정소득, 주부의 취업 유무, 가족형태, 성 역할 태도 등을 부부갈등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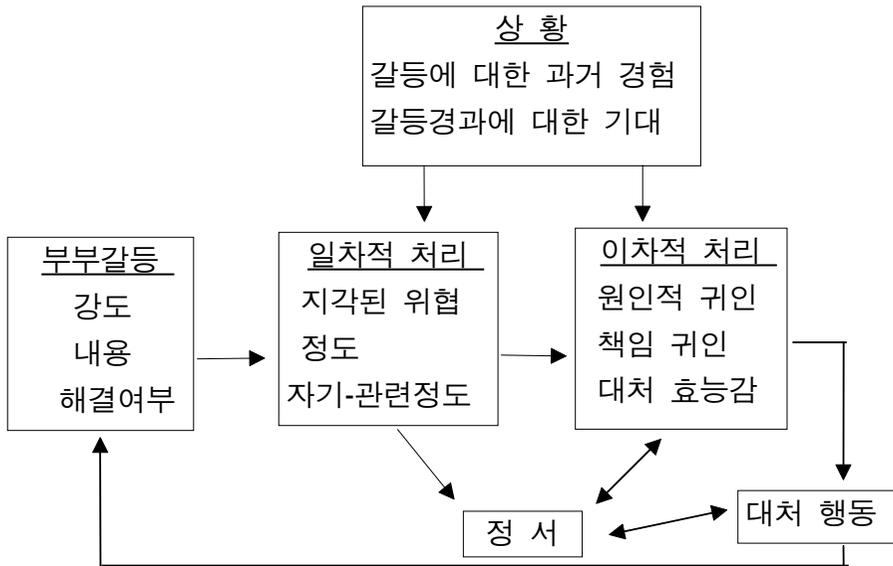
변화순(1992)은 갈등원인으로 성격과 습관의 차이(33%), 자녀 양육 및 교육(30%), 늦은 귀가(21%), 담배·술·도박(18%), 경제문제(16%),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16%)의 순으로 갈등 원인을 나타냈고 조영란(1993)은 부부간의 성격차이, 가치관의 차이, 결혼 전 사회 문화적 차이, 역할기대의 차이, 경제적 문제와 같은 개인적 요인과 핵가족화, 여성의 취업을 증가, 새로운 성 윤리관 같은 사회적 요인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김양희(1993)의 연구에서는 자녀문제가 가장 주된 것이고 다음으로 권위나 자존심, 경제문제, 친족문제, 직장인, 이웃과의 일, 종교문제, 가사관리의 문제가 가족갈등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성자(1997)는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은 배우자로서의 부정과 폭력행사 등의 역기능적 행동문제, 성격차이,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고부갈등, 친족문제 등이라고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 대부분이 부부갈등 요인으로 성격문제, 자녀 문제, 친인척 문제를 들고 있다. 자녀문제는 외국의 경우에도 보여지고 있지만 특히 한국의 가족 연구에서 중요한 부부갈등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부갈등에서 자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비난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부갈등은 자녀로 하여금 가정에서 안정을 느끼지 못하고 위축시키는 등 정서적인 불안정감을 조장하여 자녀의 원활한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능력 배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부부갈등은 아동에게 하나의 커다란 스트레스 자극이자 정서적 위협이므로 어떤 상황에서의 부부갈등이 어떤 과정을 통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 박수잔, 1996,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p. 7, 재인용.

그림(Ⅱ-1) 부부갈등에 따른 아동의 반응 설명하는 인지 상황적 구조(Grych와 Fincham, 1990)

Grych와 Fincham(1990)은 그림[Ⅱ-1]과 같이 부부갈등에 대한 ‘인지-상황적 구조(cognitive contextual framework)’을 제안하였다(박수잔, 1996, 재인용). 아동이 부부갈등을 평가할 때 아동이 지각한 위협정도(degree of perceived threat; 일차적 처리과정), 원인과 책임에 대한 귀인(attribution of blame), 그리고 대처 효능감(coping efficacy; 이차적 처리과정)과 같은 세 가지의 종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은 우선 일차적 처리과정을 통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초기 정서적 반응을 경험한다. 정서적 반응은 사건을 위협적이거나 양호한지 분류하게 하며 행동을 동기화 시킨다. 이차적 처리에서 아동은 갈등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행동적으로 반응하려고 시도한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사건 발생에 대한 원인적 귀인을 시도하고 필요하다면 책임과 원망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된다. 특히 부부불화가 아동 자신과 어느 정도 관련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서와 이차적 처리 모두 아동으로 하여금 갈등에 대한 행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이끈다. 또한 부모간 갈등에 대한 아동의 경험, 가족들의 정서적 상태와 같은 상황적인 요인, 갈등의 빈도, 강도, 내용, 해결여부와 같은 특징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부부갈등에 아동이 부여하는 의미는 갈등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평가와 갈등의 전후 상황에 따라 변하며 아동의 평가에 따라 갈등 상황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이 결정된다. 즉, 부부갈등의 실제 양상보다 아동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느냐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Compas(1987)도 아동이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만약 아동이 부모 사이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고 느끼면 부부갈등은 아동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반면에 갈등이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효능감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희망적으로 생각하며 효율적으로 대처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수잔(199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갈등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평가가 아동의 대처방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부모의 보고에 의존하기 보다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여 이것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사회적 능력의 개념과 특성

아동의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에 대한 개념은 아동의 사회적 특성의 포괄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자들의 견해 차이, 연구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해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사회적 능력은 때로 사회적 기술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McFall(1982)에 의하면 사회적 기술은 개인의 과제에 대해 능력 있게 수행하기 위해 나타나는 특수한 행동이나 이에 비해 사회적 능력은 어떤 사람이 과

제를 적절히 수행했다는 판단에 기초한 평가적 용어라고 하였다(강현심, 2000, 재인용).

김정아(1990)는 사회적 능력은 사회화된 정도, 사회 집단에 참여하는 정도로서 사회성보다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상호작용하며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포괄적인 적응 능력이라 하였다.

사회적 능력에 대한 개념은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환경에 대한 적응의 동물행동학적 접근 (White, 1959; Connolly와 Bruner,1974) 인성구조적 측면에서의 접근(Kohn와 Roseman, 1972; Baumrind, 1973),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의 접근(O'Malley, 1977; Foster와 Ritchey, 1979 ; Perry와 Bussey,1984)이 그것이다.

첫째, 동물행동학적 접근은 사회적 능력을 생존 위해 환경에 적합한 행동을 형성, 발달시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라 보는 것이다. 환경마다 지니고 있는 상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그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형성해 나감과 동시에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

사회적 능력에 대해서 White(1959)는 물리적, 정서적인 자원을 얻어서 효과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능력으로 보았고 Connolly와 Bruner(1974), Krasnordhk Rubin(1983)은 도움을 얻고 대화를 주도하는 대인관계 능력과 행위로 보고 있다.

그리고 Zigler와 Trikett(1978)도 사회적 능력을 개인이 환경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며 White(1959)의 정의와 비슷하다.

둘째, 인성구조적 측면을 강조한 학자들은 다양한 구성인자로 형성되어 있는 인성구조 중 긍정적인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을 사회적 능력이 있다고 보고 부정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 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Schaefer(1965)는 애정, 외향성, 접근성 등을 긍정적 행동으로 보고 적대감, 복종, 내향성, 회피성, 등을 부정적 행동으로 보면서 긍정적 영역에 속하는 것을 사회적 능력으로 보았고 Kohn과 Roseman(1972)은 관심, 호기심, 단호함 등의 긍정적인 항목과 관심의 결여, 기회로부터의 회피를 나타내는 부정적인 항목을 제시하여 사회적 능력을 개인의 특질이나 성향의 습득 능력, 즉

긍정적 또는 부정적 속성을 소유하고 있는 정도로 간주하였다. 사회적 능력이 높은 아동은 관심과 호기심이 있고 교사의 제한에 따르는 한도 내에서 주장적이며 호기심과 단호함, 관심과 같은 긍정적인 속성이 많으나 사회적 능력이 낮은 아동은 위축되거나 관심이 부족하고 비협조적이며 학급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방해하는 부정적인 속성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Baumrind(1973)는 사회적 능력 하위개념 요소를 사회적 책임성, 독립성, 성취지향성, 지배성, 합목적성, 우호성, 협동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 접근 방법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이다.

White(1959)는 유아기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능력을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인간의 역량으로 보았고 Weinstein(1969)은 다른 사람의 능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행동 목록의 소유,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의 소유가 사회적 능력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O'Malley(1977)는 사회적 능력을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이런 능력은 타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활동 전략을 가지는 것, 적절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위한 개인 내적 자원을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Perry와 Bussey(1984)는 또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능력을 파악하였다.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아동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며 아동에게 있어서 우정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사회적 능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여러 학자들이 사회적 능력의 개념과 측정 차원을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Pease와 동료들은 사회적 능력을 단일 차원으로 볼 수 없으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대안행위의 많은 측면들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느낌들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사회적 능력을 사회적 활동성, 부모에 대한 애정, 지도력, 유능성 안정성 등의 긍정적 행동 영역을 나타내는 요인들과 과민성, 비협조성 등의 부정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요인들로 구분하였다(Pease, Clark와 Crase, 1979).

또한, Ford(1982)는 사회적 능력을 특수한 사회적 맥락에서 적절한 수단과 긍정적인 발달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적합한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로 정의하였고 Asher(1983)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세 차원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관련성의 차원으로 사회적 상황을 인지하고 정보과정(information processing)분석을 거쳐 적절하게 자신의 행동을 적응시키는 것을 말하고, 둘째는 반응성의 차원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셋째는 과정 관점(process view)차원으로 사회적 능력이 있는 아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는 발전해 가고 문제가 해결되어 간다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 관점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능력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나 주위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공통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이므로 사회적 능력을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적응 능력으로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에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하위개념으로 유능성, 지도성, 방해성, 교사에 대한 애정, 불안정성 5가지 변인을 포함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능성(ability)으로 개인이 환경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는데 흥미가 있으며 벽찬 일도 스스로 할 수 있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대응한다. 또한 새로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전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 지도성(leadership)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기술로 아동에게 있어서 우정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있는 행동을 먼저 시작하고 또래나 어른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하며 상황에 적절한 정보를 알아내어 효과적인 결정을 한다. 또한 적합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셋째, 방해성(disruption)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위축되거나 관심이 부족하고 비협조적이며 학급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방해하는 속성으로 다른 사람의 권

유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하는 일에 참견하거나 방해하기를 좋아한다. 또래관계에서 협조적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넷째, 교사에 대한 애정(affection toward teacher)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관계를 잘 맺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능력으로 선생님에게 애정을 표현하며 선생님과 함께하기를 좋아하고 원활하게 상호작용 하는 것이다.

다섯째, 불안정성(apprehension)은 자주 깜짝 놀라거나 어려운 경우에 쉽게 당황하고 주위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걱정스러워 하는 것이다.

### 3. 부부갈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부부갈등은 가정 내에서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경험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부부갈등은 자녀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선행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은 가정의 정서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주게된다. 이때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는 자녀는 소속감을 느끼며 조화로운 안정감 있는 가족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은 욕구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개입하게 되면 자녀는 한쪽 부모와 쉽게 동맹을 맺게 된다. 그리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부부문제로부터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자녀는 희생양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밑바닥에 깔려 있는 부부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자녀의 역기능적인 행동을 강화하게 된다(권영옥, 1998).

부부갈등의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Grogan부부(1971)는 부부간의 갈등과 불

화가 자녀의 인격형성 및 사회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가족 구성원들이 갈등과 긴장감으로 가정 생활을 계속할 때 자녀들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법의 가치기준과 행동규칙을 수용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의 친구와 비행간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내의 갈등이 높을수록 문제친구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문제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친구를 가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이향선, 1999, 재인용).

다음은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및 지각된 위협, 내용 및 자기비난, 해결정도, 대처 효율성 및 삼각관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갈등의 빈도

부부간의 갈등이 자녀에게 계속 노출될 경우 두 가지의 상반된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자녀가 부부갈등에 무디어져서 거의 행동 문제를 보이지 않거나 반대로 빈번한 갈등에의 노출이 아동으로 하여금 갈등 상황에 보다 예민해지게 하여 더 많은 행동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Grych와 Fincham, 1990).

많은 연구들은 부부갈등의 빈도가 자녀의 품행장애(Jouriles, Bourg & Farris, 1991; Long et al, 1988), 학업성취나 적응 문제(Emery와 O'Leary, 1982; Wierson, 1988; 조영란, 1993)와 관계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부부갈등의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과 학교에서의 성취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부간의 분노상황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에 자주 노출되는 아동이 덜 노출되는 아동보다 더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즉, 잦은 부부갈등이 위협환경으로 작용하여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이혼 전부터 공격성, 충동성, 과잉행동, 불안한 정서적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낸다(Cummings, 1981; Block, Block과 Gjerdo, 1986).

이러한 결과들은 부부갈등의 빈도가 많을수록 아동들은 더욱 더 스트레스

를 느끼며 분노와 불안정감이 심해지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부갈등에 많이 노출된 아동일수록 심리적 문제가 심해지고 나아가서 환경과 적응하는 사회적 능력과 연관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2) 강도 및 지각된 위협

부부갈등은 가벼운 말다툼에서부터 신체적인 폭력에 이르기까지 그 강도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위반할수록 더 심각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언어적인 형태보다는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갈등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 일치하고 있다.

김소향(1994)은 부부가 심하게 싸울수록 자녀는 내면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하였다. 즉 격렬한 부부갈등을 느낀 아이는 슬픔을 느끼고 자신들이 쓸모 없으며 또래보다 건강하지 못함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Cummings와 동료들(1989)은 부모간의 신체적 폭력이 있었던 것을 보고한 자녀가 그렇지 자녀보다 더 많은 고통을 나타낸다고 한다. Emery(1982)은 부모간의 폭력을 경험한 사실이 있는 자녀는 낮은 사회적 기능 수준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이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추정으로 정신내적인 구조에서 초자아 결손(super ego defect)가설로서 부모의 무의식적 동기에서 기인되어서 부모의 무의식적이고 비언어적인 반사회적 충동이나 소원을 부모대신 행동화로 표출하는 것으로 부모의 무의식적인 조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추정이다. 이러한 이론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것이지만 자녀의 행동이 부모의 영향 하에 조정된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연구에 의하면 언어적·신체적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부부갈등이 그렇지 않은 갈등보다 자녀에게 내면적인 문제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자녀의 사회적 능력 배양에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내용 및 자기 비난

부부가 갈등을 벌이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

를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주제에 관계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갈등의 내용이 아동의 양육 문제에 관한 것일 때 아동의 부적응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정화용, 2000).

Buchanan, Maccoby와 Dornbusch(1991)는 부모의 갈등 내용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치심과 책임감, 자책과 두려움 등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갈등의 내용이 아동과 관련된 것일 때, 분노, 수치심, 무력감, 자책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소향, 1994; 박수잔, 1996).

또한 갈등의 내용이 아동 자신의 관한 것일 때는 자녀의 내면화 증상과 그 외의 것일 때 외현화 증상과 더 많은 상관이 있다고 한다(Jouriles, Murphy, Farris, Smith, Richters와 Waters, 1991).

Grych와 Fincham(1993)도 부부갈등이 자녀와 관련되어 있을 때 자녀는 정서적으로 더 많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며 갈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중재하려는 대처 반응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 (4) 해결정도

권영옥(1998)은 부모가 갈등을 벌인 다음 이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자녀는 단순히 부모간에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심각하게 갈등 상황이 일어나는가 뿐만 아니라 갈등의 의미와 해결의 정도까지도 평가를 한다. 그러므로 갈등의 해결 양상이 자녀가 갈등을 인식할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간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부모는 그들 자녀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능력과 대처 기술을 향상시키게 된다.

Cummings(1985), EI-Sheikh, Cummings와 Simpson(1989)의 연구에서도 성인간의 분노 상황에 대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 반응은 분노상황이 친사회적으로 해결될 때 크게 감소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에 빈약한 갈등해

결은 가족내에 계속되는 긴장을 가져오며 더 잦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류승희, 2000, 재인용).

Cummings(1991)와 그의 동료들은 5세에서 19세 사이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에게 화해, 사과에 의해 해결된 갈등, 복종, 주제 변경에 의해 부분적으로 해결된 갈등, 지속되는 싸움, 그리고 침묵이 미해결된 갈등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고 그들의 반응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해결된 분노는 부정적인 반응을 가장 적게 가져왔고 반면에, 부정적으로 지각한 자녀는 갈등이 미해결된 정도와 밀접하게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완전하게 해결된 분노상황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 반응은 우호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와 같은 정도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도 부분적으로라도 해결되면 그에 상응해서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하였다. 심지어 갈등이 해결된 것을 간접적으로 듣기만 한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과거에 부모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던 아이들은 그렇지 못했던 아이들에 비해 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Davies와 Cummings, 1994).

##### (5) 대처 효율성 및 삼각관계

부부갈등 상황시 자녀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각하느냐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즉 자녀가 갈등에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고 느끼면 부부갈등은 자녀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된다. 반면에 갈등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효능감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자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며 효율적인 대처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Davies와 Cummings, 1994).

그런데 갈등에 대한 아동의 대처노력은 때때로 부모의 갈등을 그치게 할 수 있으나 아동이 부부갈등에 직접적으로 중재하게 되면 부부갈등이 부모-자녀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아동을 향한 분노와 공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적응일 수 있다. 또한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개입할 경우 그것이 긍정적으로 자녀와 가족에게 해로울지라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을 감소시키므로

계속 지속될 수 있다(권영옥, 1998, 재인용). 이러한 경우에는 한 쪽 부모와 자녀가 동맹을 이루게 되는 삼각관계를 맺을 수 있다. 즉, 부부간의 갈등과 관련된 정서적인 문제에 자녀를 끌어들이므로써 긴장, 불안,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려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고 오히려 가족의 정서 체계를 더욱 혼란시키게 하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김소향(1994)은 갈등 상황에서 위협을 느끼고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불안을 느끼게 되며 부부갈등을 자녀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 분노, 수치, 무력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갈등의 문제에 자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개입하게 되어 삼각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녀가 희생양이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자신들에 의해 보고된 갈등이나 객관적으로 측정된 부부갈등의 영향보다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으로 부부갈등의 노출 정도, 부부갈등의 심각성, 부부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었는지, 갈등 내용이 자녀 자신과 관련된 것인지, 갈등 원인이 자녀 자신 탓이라고 비난하는 정도, 갈등 상황에서 두려움 정도와 대처 능력, 부모 사이에서 끼어 곤란함 정도를 측정하여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 2) 부부갈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부부갈등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가족갈등은 가족내에서 항상 존재하며 그러한 갈등을 보면서 자란 아동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된다.

정원식(1972)은 인간의 정신 건강상의 문제는 특히 어렸을 때 부모 자녀간에 이루어졌던 관계 중 결핍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으며 수용이나 따뜻함보다 사랑이 없는 극단적인 통제는 적극적인 자아개념 및 정서적 사회적 발달

에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고 했다.

Hurlock(1972)는 갈등이 심한 부부일수록 자녀 양육태도는 일치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게 되며 자녀를 거부하게 되고 자녀 또한 부모의 애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부모에게 더 반항적 태도를 취하게 되며 이러한 관계가 반복됨으로써 자녀의 성장 발달을 저해한다고 하였고(조영란, 1993, 재인용), Paulson(1972)는 부부사이의 조화,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의 일치하는 부모 자녀 관계를 이해 수용적으로 만들며 자녀는 부모의 태도를 동일시하게 되므로 건전하게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반면, 부부간의 일관성 없는 태도나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자녀를 통해 보상받으려 하면 자녀의 성격형성과 사회적 능력 발달에 불건전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Maccoby와 Martin(1983)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기본적으로 양육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하게 되며 아동의 다양한 사회적 행동 양상은 가족에게 배운다고 하였다.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능력이 높고 주위 환경에 대해서 적응력이 높다고 하였다.

부모의 따뜻함과 적절한 통제가 아동의 동료관계에서의 능력과 상관이 있으며 아동에 대한 양육자의 적절한 반응 및 일치된 지각과 정확한 해석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범실, 1987; 최경순, 1993). 즉, 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어린이의 사회화의 기초가 되며 건전한 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만족감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인숙(198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온정 및 통제적인 양육태도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이 부모를 온정적이면서도 통제적이라고 지각하는 경우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자기 지각이 가장 높았다고 나타났으며, 이것은 부모가 온정적이면서 단호한 통제를 할 경우 아동은 안정감을 가지고 환경을 탐색할 수 있고 온정적인 부모와 동일시를 통해서 타인에게 온정적으로 대하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Coe(1971)는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일치된 행동과 가치판단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부부갈등으로 부모의 가치판단이 다르다면 가정내에서 이중가치가 생기게 되고 이것은 자녀의 성장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고(정화용, 2000, 재인

용), Pettit(1998)와 그의 동료들은 문헌고찰에서 적대적이고 일관성 없는 부모의 양육은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낳게 된다고 하였다(강현심, 2000, 재인용). Emery(1992)도 부부갈등은 부부의 불만족 정도보다 자녀 문제와 더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부모간의 폭력을 경험한 사실이 있는 자녀는 낮은 사회적 기능 수준과 직접적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가정 분위기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조사한 김영숙(1978)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평화스럽고 민주적인 분위기일수록 아동은 사회화가 잘 되어 있고 이와 반대로 가정의 분위기가 적대적이고 거부적일수록 아동의 사회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결론 짓고 있다. 즉, 부부갈등으로 인한 가정의 분위기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완선, 1996, 재인용).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은 부모-자녀관계와 자아개념, 양육자의 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 관계, 가정의 분위기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 관계를 연구하고 있지만 부부갈등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가족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부갈등에 대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를 하위변인별로 나누어서 사회적 능력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초점을 두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 능력은 성별과 부모의 학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02년 12월 1일부터 2002년 12월 20일에 걸쳐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 7개 학교 21개 학급을 선정하여 6학년 75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중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편부·편모인 경우와 불완전한 응답을 한 질문지 134부를 제외한 624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하였다.

조사대상을 6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부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 12-13세라는 연구결과(Grych, Seid와 Fincham, 1992)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에서 조사대상은 표<Ⅲ-1>과 같다

<Ⅲ-1> 조사대상 현황

구 분		빈도	계	백분율	계(%)
성 별	남	318	624	51.0	100
	여	306		49.0	
학 력	아버지	중졸이하	624	6.4	100
		고졸		48.6	
		대졸이상		45.0	
	어머니	중졸이하	624	10.6	100
		고졸		62.5	
		대졸이상		26.9	

## 2. 측정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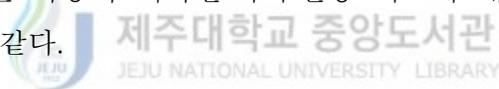
### 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

부부갈등 척도는 Grych와 그의 동료들(1992)이 개발한 것을 아동기 자녀 대상으로 하여 권영옥·이정덕(1997)에 의해 신뢰도와 문장의 타당도가 검증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부갈등에 대해서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보는 것으로 8개의 하위영역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그렇다'는 3점, '약간 그렇다'는 2점, '그렇지 않다'는 1점의 점수가 주어지며 1, 2, 5, 8, 11, 17, 20, 24, 25, 32, 35, 43번 문항은 점수가 반대로 주어진다.

본 연구에 나타난 아동의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에 대한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Ⅲ-2>와 같다.



<표Ⅲ-2>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의 하위 영역과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내용	문항 번호	$\alpha$ 계수
(1) 빈도	부부갈등의 노출 정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싸움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 9, 13, 16, 24, 31	.70
(2) 강도	부부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자녀의 지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싸움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4, 11, 19, 27, 32, 34, 39	.81
(3) 해결	부부갈등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에 대한 자녀의 지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2, 10, 17, 25, 35, 42	.76
(4) 내용	부부갈등의 내용이 자녀 자신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자녀의 지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내용이 자녀 자신과 관련된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이다.	3, 18, 26, 33	.69
(5) 자기비난	부부갈등 원인이 자녀 자신에게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이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원인이 자녀 자신의 탓이라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이다.	8, 15, 23, 37, 43	.61
(6) 지각된 위협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지각하는 두려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6, 14, 21, 29, 36, 41	.78
(7) 대처효율성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녀의 지각으로 이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다.	5, 12, 20, 28, 40, 44	.62
(8) 삼각관계	부부갈등 상황 시 자녀가 부모 사이에서 난처함이나 곤란함을 지각하는 정도로 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사이에서 난처함이나 곤란함을 많이 느낀다.	7, 22, 30, 38	.63

## 2) 사회적 능력 검사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O'Malley(1977)가 개발하고 민영순(1995)이 수정하여 사용한 아동용 평가척도로 총 28문항이다.

각 문항 측정은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순으로 점수를 배정하였고, 하위영역별 중 지도성, 유능성, 교사에 대한 애정은 점수가 높을수록 영역별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이나 방해성, 불안정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떨어진 것이다. 사회적 능력 전체 점수를 구할 때 방해성과 불안정성은 부정적 요인이므로 반대의 순으로 점수를 배정하여 합산한다. 모두 28문항으로 총점은 28점에서 140점까지의 분포를 갖는다. 따라서 사회적 능력 전체 점수는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발달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능력 검사의 하위영역과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Ⅲ-3>과 같다.



<표Ⅲ-3> 사회적 능력 검사의 하위영역과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내 용	문항 번호	$\alpha$ 계수
(1) 유능성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는데 흥미가 있으며 벽찬 일도 스스로 할 수 있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대응한다. 또한 새로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전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능성이 발달한 것이다.	1, 2, 11, 15, 18, 20, 23.	.79
(2) 지도성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있는 행동을 먼저 시작하고 또래나 어른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하며 상황에 적절한 정보를 알아 내어 효과적인 결정을 한다. 또한 적합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도성이 발달한 것이다.	3, 7, 8, 12, 24, 28.	.71
(3) 방해성	다른 사람의 권유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하는 일에 참견하거나 방해하기를 좋아한다. 또래관계에서 협조적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방해성이 높은 것이다.	4, 6, 10, 14, 17, 22, 25, 27.	.74
(4) 교사에 대한 애정	선생님에게 애정을 표현하며 선생님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고 원활하게 상호작용 하려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에 대한 애정이 높은 것이다.	5, 9, 16, 26.	.64
(5)불안정성	자주 깜짝 놀라거나 어려운 경우에 쉽게 당황하고 주위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걱정스러워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한 것이다.	13, 19, 21.	.68

### 3. 자료처리

본 연구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PC<sup>+</su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고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 능력을 부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 검증하기 위해 F 검증을 실시하여 유의도를 알아보았다.

2)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 능력에 대한 성별간의 차이와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여 유의도를 알아보았다.

3)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하위영역 정도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하위영역 별로 높게 지각한 30%인 집단을 상위집단으로 낮게 지각한 30%인 집단을 하위집단으로 정의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유의도는  $p < .01$   $p < .05$ , 두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 능력에 대해 성별과 부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에 따른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성별과 부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 검증

가설 I.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성별과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IV-1>은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성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것이다.

<표IV-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성별 차이 검증

하위 영역	구분	N	M	SD	t
빈도	남	318	9.96	1.55	-.81
	여	306	9.93	1.71	
강도	남	318	12.01	2.03	-.94
	여	306	11.97	2.16	
해결	남	318	12.61	1.49	-1.11
	여	306	12.49	1.59	
내용	남	318	5.81	1.64	3.02 **
	여	306	5.42	1.58	
자기비난	남	318	8.77	1.44	2.91 **
	여	306	8.47	1.24	
지각된 위협	남	318	11.82	3.27	.81
	여	306	11.60	3.53	
대처효율성	남	318	11.32	1.87	.18
	여	306	11.34	1.91	
삼각관계	남	318	6.30	1.75	.53
	여	306	6.22	1.84	
계	남	318	78.59	7.95	.56
	여	306	77.44	8.41	

(\*\* :  $p < .01$ )

<표IV-1>에서 보면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는 남녀 전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영역 중 내용과 자기비난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1$ ).

이는 부부갈등의 내용이 자녀 자신과 관련된다고 느끼고 갈등 원인이 자녀 자신 탓이라고 지각하는데 있어서 남아( $M=5.81$ )가 여아( $M=5.42$ )보다 더 높고( $t=3.02$ ,  $p < .01$ ), 자기비난도 남아( $M=8.77$ )가 여아( $M=8.47$ )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t=2.91$ ,  $p < .01$ ).

이는 남아가 여아가 보다 외현적인 공격성이 높기 때문에 말썽을 피우는 아들로 보일 수 있다. 또한 남아선호 사상에 의해 남아의 문제가 더 잘 드러나고 주목받기 때문에 부부싸움 내용이 아들에 대한 것이 많고, 그로 인하여 남아는 갈등의 원인이 자기 탓이라 여겨 자신을 비난하게 되는 지각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IV-2>는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IV-2>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부의 학력별 차이 검증

하위영역		구분	N	M	SD	F
빈도	중졸이하		40	10.48	2.97	2.42
	고졸		303	9.66	2.42	
	대졸이상		281	9.53	2.63	
	계		624	9.65	2.56	
강도	중졸이하		40	12.23	3.78	1.68
	고졸		303	11.41	3.20	
	대졸이상		281	11.21	3.33	
	계		624	11.37	3.30	
해결	중졸이하		40	9.35	2.87	3.67 *
	고졸		303	9.09	2.63	
	대졸이상		281	8.58	2.45	
	계		624	8.88	2.58	
내용	중졸이하		40	5.83	1.71	.34
	고졸		303	5.60	1.64	
	대졸이상		281	5.61	1.60	
	계		624	5.62	1.62	
자기비난	중졸이하		40	8.32	2.27	.62
	고졸		303	7.94	2.21	
	대졸이상		281	7.92	2.14	
	계		624	7.95	2.18	
지각된 위협	중졸이하		40	11.80	3.56	1.38
	고졸		303	11.93	3.38	
	대졸이상		281	11.46	3.40	
	계		624	11.71	3.40	
대처효율성	중졸이하		40	12.05	3.23	1.76
	고졸		303	11.69	2.73	
	대졸이상		281	11.33	2.99	
	계		624	11.55	2.89	
삼각관계	중졸이하		40	6.23	1.89	.11
	고졸		303	6.23	1.68	
	대졸이상		281	6.30	1.89	
	계		624	6.26	1.79	
합계	중졸이하		40	76.28	15.81	2.49
	고졸		303	73.56	12.53	
	대졸이상		281	71.94	13.05	
	계		624	73.00	13.02	

(\* : p<.05)

위의 <표IV-2>를 보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부의 학력별 차이 검증에서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영역 중 갈등해결 정도는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67, p<.05$ ).

따라서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M=9.35$ ), 고졸( $M=9.09$ ), 대졸이상( $M=8.58$ ) 순으로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있어서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부부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각한다.

이는 아버지 교육수준의 증가는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여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송성자(1985)의 연구와 관련시켜 볼 때, 아버지 학력이 낮을수록 부부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여 폭력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자녀는 부부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IV-3>은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모 학력별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IV-3>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모 학력별 차이 검증

하위영역		구분	N	M	SD	F
빈도	중졸이하		66	10.09	2.93	2.24
	고졸		390	9.71	2.40	
	대졸이상		168	9.35	2.74	
	계		624	9.65	2.56	
강도	중졸이하		66	11.83	3.48	4.88 **
	고졸		390	11.58	3.19	
	대졸이상		168	10.71	3.42	
	계		624	11.37	3.30	
해결	중졸이하		66	9.26	2.74	3.35 *
	고졸		390	8.99	2.56	
	대졸이상		168	8.46	2.51	
	계		624	8.88	2.58	
내용	중졸이하		66	5.85	1.79	.76
	고졸		390	5.61	1.61	
	대졸이상		168	5.57	1.58	
	계		624	5.62	1.62	
자기비난	중졸이하		66	8.20	2.54	.52
	고졸		390	7.95	2.10	
	대졸이상		168	7.88	2.22	
	계		624	7.95	2.18	
지각된 위협	중졸이하		66	11.95	3.05	3.58 *
	고졸		390	11.93	3.45	
	대졸이상		168	11.11	3.35	
	계		624	11.71	3.40	
대처효율성	중졸이하		66	11.52	2.91	4.28 *
	고졸		390	11.79	2.85	
	대졸이상		168	11.02	2.91	
	계		624	11.55	2.89	
삼각관계	중졸이하		66	5.98	1.58	.92
	고졸		390	6.31	1.72	
	대졸이상		168	6.26	2.02	
	계		624	6.26	1.79	
합계	중졸이하		66	74.68	14.30	4.94 **
	고졸		390	73.86	12.54	
	대졸이상		168	70.35	13.31	
	계		624	73.00	13.02	

(\* : p<.05, \*\* : p<.01 )

<표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어머니 학력별 차이 검증에서 전체적으로 중졸이하(M=74.68), 고졸(M=73.86), 대졸이상(M=70.35)순으로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이 지각이 높게 나타났고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4.94,  $p<.01$ ). 이는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였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강도는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F=4.88,  $p<.01$ ). 즉 부부갈등 강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어머니 학력이 중졸이하(M=11.83), 고졸(M=11.58), 대졸이상(M=10.71) 순으로 지각하고 있어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부갈등 강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다.

갈등의 해결정도도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F=3.35,  $p<.05$ ). 어머니 학력이 중졸이하(M=9.26), 고졸(M=8.99), 대졸이상(M=8.46) 순으로 부부갈등의 해결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각하고 있다.

부부갈등에 대한 지각된 위협은 어머니 학력이 중졸이하(M=11.95), 고졸(M=11.93), 대졸이상(M=11.11) 순으로 높게 나타나(F=3.58)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느끼는 두려움이 크다(F=3.58,  $p<.05$ ).

대처효율성은 어머니 학력이 고졸(M=11.79), 중졸이하(M=11.52), 대졸이상(M=11.02)순으로 갈등 상황시 자녀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지각하고 있다(F=4.28,  $p<.05$ ).

이는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계획된 양육과 가정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들어 가정 불화가 적고 갈등이 있어도 원만히 해결하여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2. 성별과 부모의 학력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 검증

가설Ⅱ.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성별과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Ⅳ-4>는 성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Ⅳ-4>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성별 차이 검증

하위영역	구분	N	M	SD	t
	유능성	남	318	22.89	4.12
여		306	22.63	4.14	
지도성	남	318	18.35	3.54	.62
	여	306	18.17	3.50	
방해성	남	318	21.07	4.96	1.12
	여	306	20.65	4.32	
교사에 대한 애정	남	318	7.37	2.52	-4.80 **
	여	306	8.43	2.94	
불안정성	남	318	7.64	2.49	-3.79 **
	여	306	8.42	2.67	
계	남	318	85.91	9.52	-.32
	여	306	86.15	9.80	

(\*\* :  $p < .01$ )

<표Ⅳ-4>와 같이 성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체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평균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 중 교사에 대한 애정과 불안정성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교사에 대한 애정은 남아( $M=7.37$ )가 여아( $M=8.43$ )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 $t=-4.80, p < .01$ ). 여아가 선생님께 애정을 표현하고 함께하기를 좋아한다.

또한 불안정성도 남아( $M=7.64$ )가 여아( $M=8.42$ )보다 낮게 나타났다( $t=-3.79,$

p<.01). 여아가 쉽게 당황하고 주위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걱정스러워 한다.

이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민영순(1995)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로 6학년 여아가 남아보다 사춘기가 조금 빠르고 성숙하여 애정을 잘 표현하지만 자신의 주위 상황에 대해 불안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IV-5>는 부의 학력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IV-5>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부의 학력별 차이 검증

하위영역		구분	N	M	SD	F
유능성	중졸이하		40	20.78	5.11	8.50 **
	고졸		303	22.48	3.86	
	대졸이상		281	23.36	4.16	
	계		624	22.76	4.13	
지도성	중졸이하		40	16.83	3.46	8.40 **
	고졸		303	17.93	3.37	
	대졸이상		281	18.82	3.59	
	계		624	18.26	3.52	
방해성	중졸이하		40	20.23	4.66	2.14
	고졸		303	20.56	4.64	
	대졸이상		281	21.28	4.66	
	계		624	20.87	4.66	
교사에 대한 애정	중졸이하		40	7.53	2.56	.59
	고졸		303	7.84	2.76	
	대졸이상		281	8.00	2.84	
	계		624	7.89	2.78	
불안정성	중졸이하		40	7.78	2.95	1.13
	고졸		303	7.90	2.54	
	대졸이상		281	8.20	2.63	
	계		624	8.03	2.61	
합계	중졸이하		40	83.13	8.99	2.60
	고졸		303	85.79	9.47	
	대졸이상		281	86.70	9.89	
	계		624	86.03	9.65	

(\*\* : p<.01)

<표IV-5>에서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체에 대한 검증에서 평균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영역인 유능성과 지도성에서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부의 학력에 따른 아동의 유능성은 대졸이상(M=23.36), 고졸(M=22.48), 중졸이하(M=20.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F=8.50,  $p<.01$ ). 이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아동이 매사에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대응하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또한 지도성도 대졸이상(M=18.82), 고졸(M=17.93), 중졸이하(M=16.8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F=8.40,  $p<.01$ ) 이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아동이 다른 사람이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하며 상황에 적절한 정보를 알아내어 효과적인 결정을 한다.

이상의 결과는 민영순(199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계획된 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매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함으로써 정보를 얻고 활용하는 능력이 길러져 유능성과 지도성이 발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IV-6>는 모의 학력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IV-6>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모의 학력별 차이 검증

하위영역		구분	N	M	SD	F
유능성	중졸이하	66	21.74	4.39	4.25 *	
	고졸	390	22.66	3.97		
	대졸이상	168	23.41	4.30		
	계	624	22.76	4.13		
지도성	중졸이하	66	17.17	3.28	10.04 **	
	고졸	390	18.05	3.40		
	대졸이상	168	19.19	3.70		
	계	624	18.26	3.52		
방해성	중졸이하	66	20.45	4.47	.69	
	고졸	390	20.80	4.58		
	대졸이상	168	21.18	4.92		
	계	624	20.87	4.66		
교사에 대한 애정	중졸이하	66	8.06	3.06	2.17	
	고졸	390	7.72	2.68		
	대졸이상	168	8.23	2.88		
	계	624	7.89	2.78		
불안정성	중졸이하	66	8.24	2.63	.39	
	고졸	390	7.96	2.65		
	대졸이상	168	8.09	2.51		
	계	624	8.03	2.61		
합계	중졸이하	66	84.27	8.96	3.51 *	
	고졸	390	85.66	9.05		
	대졸이상	168	87.56	11.05		
	계	624	86.03	9.65		

(\* : p<.05, \*\* : p<.01 )

<표IV-6>에서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체에 대한 차이 검증은 대졸이상(M=87.56), 고졸(M=85.66), 중졸이하(M=84.27) 순으로 높게 나타나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51, p<.05).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발달되었다.

하위영역을 보면 어머니 학력에 따른 지도성은 대졸이상(M=19.19), 고졸(M=18.05), 중졸이하(M=17.17) 순으로 높게 나타나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F=10.04, p<.01).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지도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능성도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대졸이상(M=23.41), 고졸(M=22.66), 중졸이하(M=21.74)순으로 높게 나타나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F=4.25, p<.05).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능성이 발달되었다.

이상에서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를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지도하여 매사에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활동하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잘 하여 유능성이 높고 지도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3.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차이 검증

<가설Ⅲ>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하위 영역 정도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Ⅲ-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빈도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 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IV-7>은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빈도 정도별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IV-7> 부부갈등의 빈도 정도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 검증

하위영역		구분	N	M	SD	t
유능성	상		193	22.00	4.19	-3.73 **
	하		239	23.49	4.02	
지도성	상		193	17.82	3.66	-2.79 **
	하		239	18.78	3.45	
방해성	상		193	21.26	4.79	1.34
	하		239	20.65	4.67	
교사에 대한 애정	상		193	7.98	2.87	.87
	하		239	7.74	2.82	
불안정성	상		193	8.49	2.54	3.03 **
	하		239	7.71	2.75	
계	상		193	84.06	9.46	-3.81 **
	하		239	87.65	9.98	

(\*\* :  $p < .01$ )

<표IV-7>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빈도 정도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 검증에서 사회적 능력은 상위집단( $M=84.06$ )이 하위집단( $M=87.65$ )보다 낮게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3.81$ ,  $p < .01$ ). 즉, 부부갈등의 빈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능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유능성, 지도성, 불안정성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1$ ).

유능성은 상위집단( $M=22.00$ )이 하위집단( $M=23.49$ )이 보다 낮게 나타나 부부갈등의 빈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유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t=-3.73$ ,  $p < .01$ ).

또한, 지도성도 상위집단( $M=17.82$ )이 하위집단( $M=18.78$ )보다 낮게 나타나 갈등의 빈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지도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t=-2.79$ ,  $p < .01$ ).

불안정성은 상위집단( $M=8.49$ )이 하위집단( $M=7.71$ )보다 높게 나타나 부부갈

등의 빈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는 불안정한다( $t=3.03, p<.01$ ).

이는 부부갈등에 많이 노출된 자녀는 심한 스트레스로 행동장애와 불안, 위축행동으로 자신감이 없고 지도성이 떨어지며 주위상황에 대해 불안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Ⅲ-2>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강도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 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Ⅳ-8>은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강도 정도별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Ⅳ-8> 부부갈등의 강도 정도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 검증

하위영역		구분	N	M	SD	t
유능성	상		195	21.89	4.29	-4.14 **
	하		203	23.65	4.19	
지도성	상		195	17.80	3.74	-2.56 *
	하		203	18.76	3.75	
방해성	상		195	21.11	4.80	1.72
	하		203	20.31	4.56	
교사에 대한 애정	상		195	7.87	2.90	-.84
	하		203	8.11	2.95	
불안정성	상		195	8.61	2.58	3.43 **
	하		203	7.71	2.63	
계	상		195	83.84	9.89	-4.64 **
	하		203	88.51	10.16	

(\* :  $p<.05$ , \*\* :  $p<.01$ )

<표Ⅳ-8>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강도 정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체의 차이 검증에서 사회적 능력은 상위집단(M=83.84)이 하위집단(M=88.51)보다 낮게 나타나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4.64$ ,  $p<.01$ ). 부부갈등이 심각하다고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능력은 떨어진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유능성과 불안정성, 지도성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01$ ,  $p<.01$ ).

유능성은 갈등 강도 지각이 높은 상위집단(M=21.89)이 갈등 강도 지각이 낮은 하위집단(M=23.65)보다 유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t=-4.14$ ,  $p<.01$ ). 즉, 부부갈등 강도를 높게 지각한 자녀일수록 유능성이 떨어졌다.

지도성도 상위집단(M=17.80)이 하위집단(M=18.76)보다 낮게 나타나 부부갈등 강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지도성이 낮다( $t=-2.56$ ,  $p<.05$ ).

불안정성은 부부갈등 강도를 높게 지각한 상위집단(M=8.61)이 하위집단(M=7.71)보다 높게 나타나 더 불안정하다( $t=3.43$ ,  $p<.01$ ).

이상에서 격렬한 부부싸움을 지각한 자녀는 가정과탄의 위기감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다른 가정과 비교하여 부모에 대한 원망과 낙담으로 자신감이 없다. 부모의 갈등을 자신이 해결할 수 없어 무능감을 느끼고 지도성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설Ⅲ-3>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해결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 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표Ⅳ-9>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미해결정도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IV-9> 부부갈등의 미해결정도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 검증

하위영역	구분	N	M	SD	t
	유능성	상	208	22.09	4.02
하		239	23.89	3.98	
지도성	상	208	17.63	3.45	-4.17 **
	하	239	19.00	3.52	
방해성	상	208	21.15	4.87	1.64
	하	239	20.43	4.46	
교사에 대한 애정	상	208	7.83	2.79	-.65
	하	239	8.00	2.84	
불안정성	상	208	8.25	2.37	1.60
	하	239	7.86	2.75	
계	상	208	84.13	9.30	-5.03 **
	하	239	88.60	9.45	

(\*\* :  $p < .01$ )

<표IV-9>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미해결정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체의 차이 검증에서 사회적 능력은 상위집단(M=84.13)이 하위집단(M=88.60)보다 낮게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t = -5.03, p < .01$ ). 부부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능력이 떨어진다.

하위영역별 보면 유능성과 지도성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p < .01$ ).

유능성은 상위집단(M=22.09)이 하위집단(M=23.89)보다 낮게 나타나 유능성이 떨어진다( $t = -4.76, p < .01$ ).

또한 지도성도 상위집단(M=17.63)이 하위집단(M=19.00)보다 낮게 나타나 부부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는 지도성이 떨어진다 ( $t = -4.17, p < .01$ ).

이상에서 권영옥(1998)의 연구 결과와 같이 부부간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

한 부부는 자녀들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능력과 대처 기술을 향상시키게 된다. 반면에 빈약한 갈등 해결은 가족내에서 긴장을 계속 가져오고 더 잦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설Ⅲ-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내용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 영역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Ⅳ-10>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자녀 자신과 관련된 내용에 따른 지각정도별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Ⅳ-10> 부부갈등의 내용정도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 검증

하위영역	구분	N	M	SD	t
	유능성	상	186	22.37	4.41
하		218	23.41	3.88	
지도성	상	186	17.90	3.53	-2.10 *
	하	218	18.66	3.68	
방해성	상	186	21.72	4.63	3.38 **
	하	218	20.19	4.43	
교사에 대한 애정	상	186	7.98	2.88	.34
	하	218	7.89	2.64	
불안정성	상	186	8.60	2.46	3.89 **
	하	218	7.61	2.61	
계	상	186	83.92	9.44	-4.30 **
	하	218	88.15	10.16	

(\* : p<.05, \*\* : p<.01)

<표Ⅳ-10>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내용 정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

력 전체의 차이 검증에서 사회적 능력은 부부갈등 내용이 자녀 자신과 관련되었다고 높게 지각한 상위집단(M=83.92)이 하위집단(M=88.15)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4.30, p<.01$ ). 부부갈등 내용이 아동과 관련된다고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능력은 떨어진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유능성과 지도성, 방해성, 불안정성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p<.05, p<.01$ ).

유능성은 상위집단(M=22.37)이 하위집단(M=23.41)보다 낮게 나타나 아동의 유능성이 떨어진다( $t=-2.54, p<.05$ ).

지도성도 상위집단(M=17.90)이 하위집단(M=18.66)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t=-2.10, p<.05$ ).

반면, 방해성은 상위집단(M=21.72)이 하위집단(M=20.19)보다 높게 나타났다. 갈등 내용이 자녀 자신과 관련된 내용일 때 자녀의 방해성이 높다( $t=3.38, p<.01$ ).

불안정성도 상위집단(M=8.60)이 하위집단(M=7.61)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부갈등 내용이 자녀 자신과 관련되었다고 지각할수록 자녀는 더 불안하다( $t=3.89, p<.01$ ).

이상에서 부부갈등 내용이 자녀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은 나 때문에 싸운다는 생각으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방해성이 높고 불안하며 항상 부모의 눈치를 보는 습관이 형성되어 지도성과 유능성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설Ⅲ-5>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자기비난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Ⅳ-11>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자기비난 정도별 사회적 능력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IV-11> 부부갈등의 자기비난 정도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 검증

하위영역		구분	N	M	SD	t
유능성	상		260	22.50	4.11	-1.41
	하		179	23.06	4.10	
지도성	상		260	17.95	3.33	-2.85 **
	하		179	18.89	3.50	
방해성	상		260	21.22	4.67	2.27 *
	하		179	20.21	4.40	
교사에 대한 애정	상		260	8.09	2.74	1.71
	하		179	7.63	2.85	
불안정성	상		260	8.29	2.57	1.29
	하		179	7.96	2.66	
계	상		260	85.03	9.27	-2.61 **
	하		179	87.41	9.49	

(\* :  $p < .05$ , \*\* :  $p < .01$ )

<표IV-11>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자기비난 정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체 대한 차이 검증에서 사회적 능력은 부부갈등 원인이 자녀 자신에게 있다고 높게 지각한 상위집단(M=85.03)이 하위집단(M=87.41)보다 낮게 나타나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t = -2.61$ ,  $p < .01$ ). 부부갈등 원인이 자녀 자신에게 있다고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능력은 떨어진다.

하위영역별로 지도성은 부부갈등의 원인이 자녀 자신 탓이라고 높게 지각한 상위집단(M=17.95)이 하위집단(M=18.89)보다 낮게 나타나며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 $t = -2.58$ ,  $p < .01$ ). 상위집단의 지도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방해성은 상위집단(M=21.22)이 하위집단(M=20.21)보다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 $t = 2.27$ ,  $p < .05$ ). 상위집단이 다른 사람의 하는 일에 참견하거나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에서 부부갈등의 원인이 자녀 자신의 탓이라고 높게 지각하는 자녀일 수록 갈등에 대한 죄책감으로 위축되어 자기를 비하시켜 지도성이 떨어지고 부부갈등은 자녀가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없어 위협감을 느끼는 반면 방해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설Ⅲ-6>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지각된 위협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Ⅳ-12>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지각된 위협 정도별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Ⅳ-12> 부부갈등의 지각된 위협정도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 검증

구 분		N	M	SD	t
유능성	상	199	22.49	4.21	-2.80 **
	하	180	23.69	4.08	
지도성	상	199	17.88	3.67	-2.77 **
	하	180	18.91	3.52	
방해성	상	199	21.36	4.95	3.16 **
	하	180	19.83	4.43	
교사에 대한 애정	상	199	8.10	2.85	.61
	하	180	7.92	2.83	
불안정성	상	199	8.81	2.64	6.11 **
	하	180	7.18	2.56	
계	상	199	84.29	10.03	-5.13 **
	하	180	89.50	9.69	

(\*\* :  $p < .01$ )

<표Ⅳ-12>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위협 정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체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사회적 능력은 부부갈등 상황에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상위집단(M=84.29)이 하위집단(M=89.50)보다 낮게 나타나 집

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5.13, p<.01$ ). 부부갈등 상황시 두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떨어진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유능성과 지도성, 방해성, 불안정성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p<.01$ ).

유능성은 상위집단( $M=22.49$ )이 하위집단( $M=23.69$ )보다 낮게 나타났다( $t=-2.80, p<.01$ ). 이는 부부갈등의 위험을 높게 지각할수록 유능성은 떨어진다.

지도성도 상위집단( $M=17.88$ )이 하위집단( $M=18.91$ )보다 지도성이 떨어진다( $t=-2.77, p<.01$ ).

반면, 방해성은 상위집단( $M=21.36$ )이 하위집단( $M=19.83$ )보다 높게 나타났다( $t=3.16, p<.01$ ). 불안정성도 상위집단( $M=8.81$ )이 하위집단( $M=7.18$ )보다 높게 나타났다( $t=6.11, p<.01$ ).

이상에서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두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공포, 분노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다른 분노 상황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안전이나 보호의 욕구가 강하게 된다. 늘 불안하여 타인의 의도에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하게 되어 방해성이 높은 반면 유능성과 지도성은 떨어지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설Ⅲ-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대처효율성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표Ⅳ-13>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대처효율성 정도별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 간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IV-13>부부갈등의 지각된 대처효율성 정도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 검증

하위영역	구 분	N	M	SD	t
유능성	상	234	22.05	4.31	-4.29 **
	하	164	23.90	4.09	
지도성	상	234	17.54	3.72	-4.56 **
	하	164	19.21	3.42	
방해성	상	234	20.89	4.79	1.58
	하	164	20.13	4.56	
교사에 대한 애정	상	234	7.41	2.69	-2.58 *
	하	164	8.15	2.97	
불안정성	상	234	8.58	2.59	4.32 **
	하	164	7.44	2.60	
계	상	234	83.54	9.22	-6.34 **
	하	164	89.69	9.94	

(\* : p<.05, \*\* : p<.01)

<표IV-13>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대처효율성 정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체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사회적 능력은 부부갈등 상황시 자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높게 지각하는 상위집단(M=83.54)이 하위집단(M=89.69)보다 낮게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6.34, p<.01). 상위집단의 사회적 능력이 떨어진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유능성과 지도성, 불안정성, 교사에 대한 애정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유능성은 상위집단(M=22.05)이 하위집단(M=23.90)보다 낮게 나타나 유능성이 떨어진다고(t=-4.29, p<.01).

지도성도 상위집단(M=17.54)이 하위집단(M=19.21)보다 낮게 나타나 지도성이 떨어진다고(t=-4.56, p<.01).

교사에 대한 애정도 상위집단(M=7.41)이 하위집단(M=7.44)보다 낮게 나타났다. (t=2.58, p<.05)

반면, 불안정성은 상위집단(M=8.58)이 하위집단(M=7.44)보다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t=4.32, p<.01). 갈등 상황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높게 지각하는 자녀가 불안하다.

이상에서 부부갈등 상황에서 위협을 느끼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높게 지각하는 자녀는 공포를 느끼고 불안하여 침착성이 없으며 소심하고 무력하여 사회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설Ⅲ-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삼각관계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Ⅳ-14>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삼각관계 정도별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Ⅳ-14> 부부갈등의 삼각관계 정도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 검증

하위영역		구분		N	M	SD	t
		상	하				
유능성	상	147	22.99	3.77	.10		
	하	242	22.95	4.00			
지도성	상	147	18.58	3.67	1.00		
	하	242	18.22	3.31			
방해성	상	147	21.69	4.92	2.84 **		
	하	242	20.27	4.68			
교사에 대한 애정	상	147	8.29	2.87	1.47		
	하	242	7.87	2.68			
불안정성	상	147	8.31	2.61	2.47 *		
	하	242	7.63	2.62			
계	상	147	85.86	10.31	-1.25		
	하	242	87.13	9.34			

(\* : p<.05, \*\*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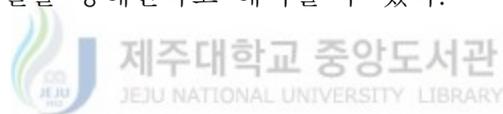
<표Ⅳ-14>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삼각관계 정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체에 대한 검증에서 사회적 능력은 부부갈등 상황시 자녀가 부모 사이에서 난처함이나 곤란함을 높게 느끼는 상위집단(M=85.86)이 하위집단(M=87.31)보다 평균치는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하위영역에서 방해성, 불안정성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해성은 상위집단(M=21.67)이 하위집단(M=20.27)보다 높게 나타났다( $t=2.84, p<.01$ ). 부부갈등 상황에서 곤란함을 많이 느낄수록 방해성이 높다.

불안정성도 상위집단(M=8.31)이 하위집단(M=7.63)보다 높게 나타나 불안정하다( $t=2.47, p<.05$ ).

이러한 사실은 부부싸움은 아동 자신과 관계없이 일어나고 부모의 갈등에 대한 자녀의 생각과 느낌은 무시된 채 삼각관계로 인해 자녀가 희생이 되어 죄책감을 갖거나 불안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다른 사람의 하는 일을 방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설Ⅲ-9>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Ⅳ-15>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별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표Ⅳ-15> 전체 부부갈등 정도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 검증

하위영역		구분	N	M	SD	t
유능성	상		194	21.77	4.41	-4.66 **
	하		189	23.79	4.09	
지도성	상		194	17.57	3.70	-3.94 **
	하		189	19.01	3.42	
방해성	상		194	21.53	4.99	3.40 **
	하		189	19.92	4.29	
교사에 대한 애정	상		194	7.94	2.99	.36
	하		189	7.84	2.85	
불안정성	상		194	8.72	2.60	5.44 **
	하		189	7.29	2.53	
계	상		194	83.04	9.99	-6.36 **
	하		189	89.43	9.68	

(\*\* :  $p < .01$ )

<표Ⅳ-15>에서 보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체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사회적 능력은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한 상위집단(M=83.04)이 갈등을 낮게 지각한 하위집단(M=89.43)보다 낮게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 = -6.36, p < .01$ ). 이는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유능성, 지도성, 방해성, 불안정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능성은 자녀가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한 상위집단(M=21.77)이 하위집단(M=23.79)보다 낮게 나타나 유능성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t = -4.66, p < .01$ ).

지도성도 상위집단(M=17.57)이 하위집단(M=19.01)보다 낮게 나타나 지도성이 떨어진다고( $t=-3.94, p<.01$ ).

반면, 방해성은 상위집단(M=21.53)이 하위집단(M=19.92)보다 높게 나타나 갈등 지각이 높을수록 방해성이 높다( $t=3.40, p<.01$ ).

불안정성도 상위집단(M=8.72)이 하위집단(M=7.29)보다 높게 나타나 부부갈등 지각이 높을수록 불안하다( $t=5.44, p<.01$ ).

교사에 대한 애정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첫째,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으로 부모-자녀관계이므로 교사에 대한 애정은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한 학교에서 교사는 부부갈등과 관계없이 아동들을 평등하게 지도하고 애정을 표현함으로써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아동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자녀들은 불안하고 위축되어 소극적이다. 자기를 비하하여 무력감을 나타내고 새로운 문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또한 부모 사이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참견하여 방해성이 높고 항상 불안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사회적 능력의 하위영역 중 지도성은 부부갈등의 삼각관계를 제외한 모든 부부갈등 하위 영역을 높게 지각하면 낮게 나타났다. 유능성도 자기비난과 삼각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갈등 지각이 높으면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에 대한 애정은 대처효율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부부갈등 지각이 높으면 방해성과 불안정성이 높았다.

## V. 요약,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요약,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요약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 능력은 성별과 부모의 학력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구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성별과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성별과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하위영역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빈도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2.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강도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Ⅲ-3.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해결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Ⅲ-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내용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Ⅲ-5.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자기비난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Ⅲ-6.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지각된 위협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Ⅲ-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대처효율성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Ⅲ-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삼각관계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Ⅲ-9.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주시에 소재 한 초등학교 7개교 21학급 6학년생 758명 대상으로 질문지로 조사하여 그 중 624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삼았다. 측정도구는 Grych와 그의 동료들(1992)이 개발하고 권영옥, 이정덕(1997)에 검증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와 O’Malley(1977)가 개발하고 민영순(1995)이 수정하여 사용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PC<sup>+</su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성별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는 하위영역 중 내용과 자기비난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3.02$ ,  $t=2.91$ ,  $p<.01$ ). 부부갈등의 내용이 자녀 자신과 관련된다고 느끼고 갈등 원인이 자녀 자신 탓이라고 지각하는데 있어서 남아( $M=5.81$ )가 여아( $M=5.42$ )보다 더 높고, 자기비난도 남아( $M=8.77$ )가 여아( $M=8.47$ )보다 더 높다.

둘째, 부의 학력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서 하위영역 중 갈등 해결 정도는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F=3.67, p<.05$ ). 부부갈등 해결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M=9.35$ ), 고졸( $M=9.09$ ), 대졸이상( $M=8.58$ ) 순으로 지각하고 있어서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부부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각 정도가 높다( $F=3.67$ ).

셋째, 모의 학력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차이 검증에서 전체적으로 중졸이하( $M=74.68$ ), 고졸( $M=73.86$ ), 대졸이상( $M=70.35$ )순으로 부부갈등에 대한 지각이 높게 나타났고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F=4.94, p<.01$ ). 어머니 학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

하위영역별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강도는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01$ ). 즉 부부갈등 강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어머니 학력이 중졸이하( $M=11.83$ ), 고졸( $M=11.58$ ), 대졸이상( $M=10.71$ ) 순으로 지각하고 있어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부갈등 강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다( $F=4.88$ ). 부부갈등의 해결정도, 지각된 위협, 대처 효율성은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p<.05$ ). 갈등의 해결정도는 모 학력이 중졸이하( $M=9.26$ ), 고졸( $M=8.99$ ), 대졸이상( $M=8.46$ ) 순으로 부부갈등의 해결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각하고 있다( $F=3.35$ ).

부부갈등에 대한 지각된 위협은 모 학력이 중졸이하( $M=11.95$ ), 고졸( $M=11.93$ ), 대졸이상( $M=11.11$ ) 순으로 높게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느끼는 두려움이 높다( $F=3.58$ ).

대처효율성은 모 학력이 고졸( $M=11.79$ ), 중졸이하( $M=11.52$ ), 대졸이상( $M=11.02$ ) 순으로 갈등 상황 시 자녀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지각하고 있다( $F=4.28$ ).

넷째, 성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체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사회적 능력 하위변인 중 교사에 대한 애정과 불안정성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p<.01$ ). 교사에 대한 애정은 남아( $M=7.37$ )가 여아( $M=8.43$ )가 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t=-4.80$ ). 여아가 선생님께 애정을 표현하고 함께하기를 좋아한다. 또한 불안정성도 남아( $M=7.64$ )가 여아( $M=8.42$ )보다 낮다( $t=-3.79$ ). 여아가 쉽게 당황하고 주위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걱정스러워 한다.

다섯째,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체에 대한 검증에서 하위영역인 유능성과 지도성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p < .01$ ).

부의 학력에 따른 아동의 유능성은 대졸이상( $M=23.36$ ), 고졸( $M=22.48$ ), 중졸이하( $M=20.78$ )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F=8.50$ ). 이는 부의 학력이 높은 아동이 매사에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대응하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또한 지도성도 대졸이상( $M=18.82$ ), 고졸( $M=17.93$ ), 중졸이하( $M=16.83$ )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F=8.40$ ). 이는 부의 학력이 높은 아동이 다른 사람이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하며 상황에 적절한 정보를 알아내어 효과적인 결정을 한다.

여섯째,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체에 대한 차이 검증은 대졸이상( $M=87.56$ ), 고졸( $M=85.66$ ), 중졸이하( $M=84.27$ ) 순으로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3.51$ ,  $p < .05$ ). 어머니 학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사회적 능력이 발달하였다.

하위영역을 보면 어머니 학력에 따른 지도성은 대졸이상( $M=19.19$ ), 고졸( $M=18.05$ ), 중졸이하( $M=17.17$ ) 순으로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F=10.04$ ,  $p < .01$ ).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지도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능성도 모의 학력에 따라 대졸이상( $M=23.41$ ), 고졸( $M=22.66$ ), 중졸이하( $M=21.74$ ) 순으로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F=4.25$ ,  $p < .05$ ).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능성이 발달되었다.

일곱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빈도 정도에 따른 자녀의 사회적 능력 전체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사회적 능력은 상위집단( $M=84.06$ )이 하위집단( $M=87.65$ )보다 낮게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3.81$ ,  $p < .01$ ). 부부갈등의 빈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능력이 떨어진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유능성, 지도성, 불안정성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1$ ). 유능성은 상위집단( $M=22.00$ )이 하위집단( $M=23.49$ )이 보다 낮게 나타나( $t=-3.73$ ) 부부갈등의 빈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유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지도성도 상위집단( $M=17.82$ )이 하위집단( $M=18.78$ )보다 낮게 나타나( $t=-2.79$ ) 갈등의 빈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지도성이 떨어진다. 불안정성

은 상위집단(M=8.49)이 하위집단(M=7.71)보다 높게 나타나( $t=3.03$ ) 부부갈등의 빈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는 불안정한다.

여덟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강도 정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체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사회적 능력은 상위집단(M=83.84)이 하위집단(M=88.51)보다 낮게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4.64$ ,  $p<.01$ ). 부부갈등을 심각하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떨어진다.

하위영역에서 유능성과 불안정성, 지도성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유능성은 갈등 강도 지각이 높은 상위집단(M=21.89)이 하위집단(M=23.65)보다 유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t=-4.14$ ,  $p<.01$ ). 즉, 부부갈등 강도를 높게 지각한 자녀일수록 유능성이 떨어진다. 지도성도 상위집단(M=17.80)이 하위집단(M=18.76)보다 낮게 나타나 부부갈등 강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지도성이 떨어진다( $t=-2.56$ ,  $p<.05$ ). 불안정성은 부부갈등 강도를 높게 지각한 상위집단(M=8.61)이 하위집단(M=7.71)보다 높게 나타나 부부갈등 강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더 불안정하다( $t=3.43$ ,  $p<.01$ ).

아홉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해결 정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체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사회적 능력은 부부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높게 지각한 상위집단(M=84.13)이 하위집단(M=88.60)보다 낮게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t=-5.03$ ,  $p<.01$ ). 유능성과 지도성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유능성은 부부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높게 지각한 상위집단(M=22.09)이 하위집단(M=23.89)보다 낮게 나타나 부부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높게 지각할수록 유능성이 떨어진다( $t=-4.76$ ,  $p<.01$ ). 또한 지도성도 상위집단(M=17.63)이 하위집단(M=19.00)보다 낮게 나타나 부부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는 지도성이 떨어진다( $t=-4.17$ ,  $p<.01$ ).

열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내용 정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체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사회적 능력은 부부갈등 내용이 자녀 자신과 관련되었다고 높게 지각한 상위집단(M=83.92)이 하위집단(M=88.15)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4.30$ ,  $p<.01$ ). 부부갈등 내용이 자녀 자신과 관련

되었다고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능력이 떨어진다. 유능성과 지도성, 방해성, 불안정성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유능성은 상위집단(M=22.37)이 하위집단(M=23.41)보다 낮게 나타나 갈등 내용이 자신과 관련되었다고 높게 지각한 아동의 유능성이 떨어진다( $t=-2.53$ ,  $p<.05$ ). 지도성도 상위집단 (M=17.90)이 하위집단(M=18.66)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t=-2.10$ ,  $p<.05$ ). 반면, 방해성은 부부갈등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고 높게 지각한 상위집단 (M=21.72)이 하위집단(M=20.19)보다 높게 나타났다( $t=3.38$ ,  $p<.01$ ). 갈등 내용이 자녀 자신과 관련된 내용일 때 자녀의 방해성이 높다. 불안정성도 상위집단(M=8.60)이 하위집단(M=7.61)보다 높게 나타났다( $t=3.89$ ,  $p<.01$ ).

열 하나,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자기비난 정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체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사회적 능력은 부부갈등 원인이 자녀 자신에게 있다고 높게 지각한 상위집단(M=85.03)이 하위집단(M=87.41)보다 낮게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t=-2.61$ ,  $p<.01$ ). 상위집단이 사회적 능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지도성과 방해성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도성은 부부갈등의 원인이 자녀 자신 탓이라고 높게 지각한 상위집단(M=17.95)이 하위집단(M=18.89)보다 낮게 나타나 갈등 원인이 자기 탓이라고 높게 지각할수록 지도성이 떨어진다( $t=-2.58$ ,  $p<.01$ ).

또한 방해성은 부부갈등의 원인이 자기 탓이라고 높게 지각한 상위집단 (M=21.22)이 하위집단(M=20.21)보다 높게 나타나 다른 사람의 하는 일에 참견하거나 방해한다( $t=2.27$ ,  $p<.05$ ).

열 둘,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위협 정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체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사회적 능력은 부부갈등 상황에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상위집단(M=84.29)이 하위집단(M=89.50)보다 낮게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5.13$ ,  $p<.01$ ) 부부갈등 상황시 두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떨어진다. 하위영역에서 유능성과 지도성, 방해성, 불안정성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p<.01$ ). 유능성은 부부갈등 상황에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상위집단(M=22.49)이 하위집단(M=23.69)보다 낮

게 나타났다.( $t=-2.80, p<.01$ ) 이는 부부갈등의 위험을 높게 지각할수록 유능성은 떨어진다. 지도성도 상위집단( $M=17.88$ )이 하위집단( $M=18.91$ )보다 지도성이 떨어진다( $t=-2.77, p<.01$ ). 반면, 방해성은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상위집단( $M=21.36$ )이 하위집단( $M=19.83$ )보다 높게 나타났다.( $t=3.16, p<.01$ ) 불안정성도 상위집단( $M=8.81$ )이 하위집단( $M=7.18$ )보다 높게 나타나 부부갈등 상황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자녀일수록 방해성과 불안정성이 높다( $t=6.11, p<.01$ ).

열 셋,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대처효율성 정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체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사회적 능력은 부부갈등 상황시 자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높게 지각하는 상위집단( $M=83.54$ )이 하위집단( $M=89.69$ )보다 낮게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6.34, p<.01$ ). 상위집단의 사회적 능력이 낮다.

하위영역에서 유능성, 지도성, 불안정성, 교사에 대한 애정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유능성은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높게 지각하는 상위집단( $M=22.05$ )이 하위집단( $M=23.90$ )보다 유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t=-4.29, p<.01$ ). 지도성도 상위집단( $M=17.54$ )이 하위집단( $M=19.21$ )보다 지도성이 낮게 나타났다.( $t=-4.56, p<.01$ ) 교사에 대한 애정도 상위집단( $M=7.41$ )이 하위집단( $M=7.44$ )보다 낮게 나타났다( $t=-2.58, p<.05$ ). 반면, 불안정성은 상위집단( $M=8.58$ )이 하위집단( $M=7.44$ )보다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t=4.32, p<.01$ ). 갈등 상황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높게 지각하는 자녀가 불안하다.

열 넷,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삼각관계 정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체에 대한 검증에서 사회적 능력은 부부갈등 상황시 자녀가 부모 사이에서 난처함이나 곤란함을 높게 느끼는 상위집단( $M=85.86$ )이 하위집단( $M=87.31$ )보다 평균치는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하위영역에서 방해성과 불안정성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해성은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 사이에서 난처함이나 곤란함을 높게 지각한 상위집단( $M=21.67$ )이 하위집단( $M=20.27$ )보다 높게 나타나 갈등 상황에서 부모 사이에 낀 것 같아 곤란함이나 난처함을 높게 느끼면 방해성

이 높다( $t=2.84, p<.01$ ). 불안정성도 상위집단( $M=8.31$ )이 하위집단( $M=7.63$ )보다 높게 나타나 불안정하다( $t=2.47, p<.05$ ).

열 다섯,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체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사회적 능력은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한 상위집단( $M=83.04$ )이 갈등을 낮게 지각한 하위집단( $M=89.43$ )보다 낮게 나타나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t=-6.36, p<.01$ ) 이는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유능성, 지도성, 방해성, 불안정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1$ ).

유능성은 자녀가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한 상위집단( $M=21.77$ )이 하위집단( $M=23.79$ )보다 낮게 나타나 유능성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t=-4.66$ ).

지도성도 상위집단( $M=17.57$ )이 하위집단( $M=19.01$ )보다 낮게 나타나 지도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t=-3.14, p<.01$ ).

반면, 방해성은 상위집단( $M=21.53$ )이 하위집단( $M=19.92$ )보다 높게 나타나 갈등 지각이 높을수록 방해성이 높다( $t=3.40, p<.01$ ). 불안정성도 상위집단( $M=8.72$ )이 하위집단( $M=7.29$ )보다 높게 나타나 부부갈등 지각이 높을수록 불안하다( $t=5.44, p<.01$ ).

## 2.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 정도는 남아가 여아보다 부부갈등 내용이 자녀 자신과 관련되어 있고 자기 탓이라고 더 비난한다.

둘째, 부모의 학력에 따른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의 정도는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원만히 해결된다고 지각하고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은 부부갈등이 심각하지 않으며 원만히 해결된다고 보며 갈등 상황에서 두려움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셋째, 성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여아가 남아보다 교사에 대한 애

정은 더 많이 표현하나 쉽게 당황하고 주위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넷째, 부모의 학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매사에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협조적으로 집단을 잘 이끌어 간다. 즉,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부모의 영향이 있다.

다섯째,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자주 노출되고 심각하다고 지각할수록 매사에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으며 또래 집단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고 불안하다.

여섯째, 부부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높게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하고 소극적이며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행동을 먼저 시작하고 제안하지 못한다.

일곱째, 부부갈등이 자녀 자신과 관련되고 갈등 상황에서 두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새로운 일에 흥미가 없고 벽찬 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으며 지도성이 떨어진다. 또한 다른 사람의 권유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며 참견하고 불안하다.

여덟째, 부부갈등 원인이 자녀 자신 탓이라고 비난할수록 적합한 방법으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또래를 이끌어 가는 지도성이 떨어지고 협조적이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비판에 민감하다

아홉째,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각할수록 소극적이고 무력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행동이나 의견을 제안하지 못하며 선생님에게 애정 표현이 부족하다.

열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은 떨어진다.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한 아동들이 매사에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으며 수동적이다. 또래관계에서는 비협조적이며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고 불안하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면, 아동의 지각한 부부갈등은 사회적 능력 발달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부간의 갈등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능력 발달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가정환경의 중요성, 특히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 3. 제 언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는데,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성장과 발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령층을 세분화하여 사회적 능력에 미칠 수 있는 부부갈등의 요인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통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가족 변수 중 부부간의 갈등만을 측정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가족과, 형제자매, 아동의 기질과 같은 아동관련 변수에 의한 차이를 검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았는데 부부갈등은 어느 가정이나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보다는 갈등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부갈등이 긍정적으로 해결되는 상황을 통해 배운 것을 또래관계나 대인관계에 얼마나 적절하게 적용하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현심(2000).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공인숙(1989). 부부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권영옥(199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 행동 문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권영옥 · 이정덕(1996).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복지학회 18(1), 65-80.
- 권윤정(1998).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 양육 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령(1990). 부부의 공동 의사 결정시 내재된 갈등과 갈등관리 형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갑숙(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김경자(1998). 부부갈등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대학원.
- 김소향(1994).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감정적 평가와 인지적 평가.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시엽(1999). 결혼과 가정. 서울:학지사.
- 김양희(1986). 한국 도시인의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서울시 거주 표본조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완선(1996).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재은(1974). 한국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와 그 집단 성격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류승희(2000). 부부갈등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민영순(1995). 가정환경 및 학급사회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박민숙(1985).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수잔(1996).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의 심리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백현정(1999). 아동이 지각한 경제적 어려움, 부부갈등, 양육태도 및 애착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 송성자(1985).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의사소통 가족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전대학교 대학원.
- 송성자(1997).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 오은순(1996). 이혼 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영주(1992). 신가족관계학. 박사학위논문, 서울: 교문사.
- 이재연, 최영희 역(1990). 의사소통과 가족관계. 서울: 형설출판사.
- 이정덕·권영옥(1997). 부부갈등과 아동 행동 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동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1. 23-45.
- 이향선(2000). 부부갈등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 정원식(1972). 인간과 교육. 서울: 배영사.
- 정화용(2000).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 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영란(1993). **부부갈등과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연숙(1999). **부부갈등이 자녀의 정서적 인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재울(1988). **가족사회학**. 전남대학교 출판부.
- Asher, S. R. (1983). Social competency and peer Status: Recent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Child Development*, 54.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lock, J. H., Block. J., & Gjerde, P. J.(1986). The personality of children prior to divorce. *Child Development*, 57, 827-840.
- Buchanan, C, M., Maccoby, E. E., & Dornbusch, S. M.(1991). Caught between parents: Adolescent experience in divorced homes. *Child Development*, 62, 1008-1029
- Coleman, J. C.(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Indianapolis: The Bobbs Merrill.
- Collins, R., (1971) *Conflict socialy*, N,Y. : Academic.
- Connolly, K., & Bruner, J.(1974). *Competence : Its nature and nurture*. The Growth of competence London Academic Press.
- Cummings, E. M., & Cummings, J. L.(1988). The Process-oriented approach to children's coping with adults' angry behavior. *Developmental Review*, 8, 296-321.
- E. M., Ballard, M., EI-sheikh. M.(1991). Responses children and adolescent to inter adult anger as a function of gender, age, and model of expression *Merrill-palmer Quarterly* 37, 543-560.
- E. M., Zahn-Waxler, C., & Radke-Yarrow, M.(1981). Young

- children's responses to different forms of expression of anger between adults *Child Development*, 60, 1392-1404.
- Davies, P.T., & Cummings, E.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odge, K. A., Pettit, G. S., Maclaskey, C. L.& Brown, M. M. (1986)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1, 2(Serial No,213)
- Emery, R. E., & O'Leary, K. D.(1982) Children's perceptions of marital discord and behavior problems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11-24.
- Ford, M. E.(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y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 Galvin, K.m., & Brommel, B. J.(1986). Family Communication : cohesion and change, Scott. Foresman and company.
- Grych, J. H. & Fincham, F. D.(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111, 434-454
- (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 , Seid, M., & Fincham, F. D.(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or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 parent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Jouriles, E, N., Murphy, C. M., Farris, A. M., Smith, D. A., Richters, J. E. & Waters. E.(1991). Marital adjustment, parental disagreements about child rearing and behavior problems in boys: increasing the specificity of the marital assessment. *child Development*, 62, 1424-1433

- Kohn, M. & Roseman, B, L.(1972). A social competence scale and symptom checklist for the preschool child : factor dimension, their cross-instrument generality and longitudinal persis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 Long, N., Slater, E., Forehand, R., & Fauber, R.(1988). Continued high or reduced inter parental conflict following divorce: Relation to young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67-469.
- Murray Bowen From couch : Address given at the Georgetown, Symposium Psychotherapy. October 1970, p.119.
- O'Malley, J. M, (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23.
- Parson. T. (1949). *Essays in sociological theory pure and applied*. Glencoe : The Free press.
- Paulson, M. J.(1972). *Family harmony*, Child Development, N. Y.: Prentice. Hall.
- Pease, D., Clark, S. G., Grase , S, J.(1979). *Iowa Social Competence Scales: School Age & Preschool Manual*.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Hall.
- Rice, F. P(1979).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Allyn and Bacon, chap 14. Rodriguez, V.(1985). Attitudes towards corporal punishment social support system and conflict resolution techniques related to family violence in puertorican familie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Temple univ., PH.D.
- Schar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 Sprey, J(1979). *Conflict theory and the study of marriage and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 2, Research based theories (Eds)W. r. Burr, R. Hill, F. Nys, I. L. Reiss : The Free Press.

White, R. C.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Wilmot, Joyce Hocker. Wilmot, William(1978). Interpersonal conflict,  
Dubugue, Iowa:Wm C. Brown Co.,

Zigler, E., & Trickett, P. K. (1978). I. Q, social competence and evaluation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rograms *American  
Psychologist*.



<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ir social competence.**

Kim Mi - Suk

Counseling-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Myoung - Kyou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 of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ir social competence. In order to achieve this, I present the following topics for study: First, what is the difference of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 parental conflict and their social competence according to their sex and parents education? Second, what is the difference of social competence according to the marital conflict that children perceiv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758, 6th graders among 7schools, and 21 classes in Jeju. I used 624-student survey results. Omitted from the survey were 134 students who are without parents, or either a father, or a mother.

I used both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made by Grych, and verified by Kweon Young Ok, Lee Jeong Deok (1997), and "the evaluation of the children's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scale, designed by

---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3.

OMally (1977), and modified and used by Min Young Soon (1995).

Si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degree of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I noted two groups: a highly perceptive group (30%), and low perception (30%). I adapted the *F* verification and *t* verification methods from the SPSS/PC statistics program.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rom the study: First, this survey shows us that the degree of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is clear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ild's sex. Boys relate their own problems to marital conflict more than girls do. Furthermore, boys criticize themselves more than girls do.

Second, this survey shows us that the degree of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is clearly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parents education. Children perceive that fathers with higher education are better equipped to resolve marital conflict. Mothers with a higher degree of education did not make the problem more serious. Therefore, the children were able to cope with their parents conflict more efficiently.

Third, this survey shows us that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s clearly different according to sex. Girls express themselves more than boys do. However, they are more easily embarrassed, and more anxious about their surrounding situation.

Fourth, this survey shows us that parents with higher education are more developed in their ability of social competence and leadership. The children's social ability is very clearly affected by their parents.

Fifth, this survey shows us that higher perception of the marital conflict lowers children's social ability and their competence and leadership abilities. Furthermore, they have a tendency to interfere in others matters and are easily surprised, and frequently embarrassed.

Sixth, this survey shows us that with the higher perceptive children are more negative, have less confidence, and are more passive. Moreover, in peer relationships they are less cooperative and are very sensitive, and anxious about

others reactions.

Based on these conclusions, we can see that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relates with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higher the marital conflict is the lowe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nvironment of their home, especially the marital relationship of the parents and children, is a very important factor related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 질 문 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 가정이나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투거나 의견이 맞지 않으실 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갖는 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적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 하나 읽어 가면서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답에 "o"표를 해주세요.

이 내용은 선생님이나 부모님, 다른 친구에게 절대로 보여지지 않고 연구자의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므로 솔직하게 대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김 미 속 드림

※여러분의 개인적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을 읽어보시고 "o" 해주세요.

1. 성별은 ? ① 남 ( ) ② 여 ( )

2. 나의 형제 관계는 : 나는 \_\_\_\_남 \_\_\_\_녀 중 \_\_\_\_번 째 입니다.

3. 현재 나와 살고 있는 가족 수는? \_\_\_\_\_명이다.

할아버지( ) 할머니( ) 아버지( ) 어머니( ) 형( ) 누나( )  
오빠( ) 언니( ) 남동생( ) 여동생( ) 기타( )

4. 아버지의 학력

- ① 초등학교 졸업 ( )                      ② 중학교 졸업 ( )  
③ 고등학교 졸업 ( )                      ④ 대학교(전문대학) 졸업( )  
⑤ 대학원 졸업 ( )

5. 어머니의 학력

- ① 초등학교 졸업 ( )                      ② 중학교 졸업 ( )  
③ 고등학교 졸업 ( )                      ④ 대학교(전문대학) 졸업( )  
⑤ 대학원 졸업 ( )

문 항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1.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는 것은 본적이 없다.			
2.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면 보통 잘 해결이 된다.			
3. 우리 부모님은 나의 학교일 때문에 자주 다투게 된다.			
4.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신다.			
5.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나의 기분이 좀 나아지도록 무언가를 할 수 있다.			
6. 나는 나의 부모님이 다투실 때 겁이 난다.			
7.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부모님 사이에 끼인 것 같아 난처하다.			
8.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그것은 내 탓이 아니다.			
9. 우리 부모님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주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으신다.			
10.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에도 서로에게 화가 나 있으신다.			
11. 우리 부모님은 의견이 맞지 않으실 때 조용히 의논하신다.			
12.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13. 우리 부모님은 내가 주위에 있더라도 자주 서로에게 나쁘게 하신다.			
14.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한다.			
15.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흔히 그것은 내 탓이다.			
16. 나는 부모님이 다투시는 것을 자주 본다.			
17. 우리 부모님은 어떤 일에 의견이 맞지 않으실 때 대부분 해결책을 찾아내신다.			
18. 우리 부모님은 보통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투신다.			
19.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는 서로에게 나쁜 말을 하신다.			
20.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으실 때는 나는 대부분 일이 잘 되도록 도울 수 있다.			
21.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면 나는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렵다.			
22. 우리 엄마는 아빠와 다투실 때 내가 엄마 편을 들기 원한다.			

문항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23. 부모님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는 것이 내 탓임을 안다.			
24. 우리 부모님은 거의 다투시지 않는다.			
25.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 보통 금방 사이가 좋아지신다.			
26. 우리 부모님은 평소에 내게 하는 일 때문에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다.			
27.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는 큰 소리를 많이 지르신다.			
28.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부모님이 그만 하시도록 할 수가 없다.			
29.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치실까 봐 걱정한다.			
30. 우리 부모님의 의견이 서로 안 맞을 때 나는 어느 한 쪽편을 들어야 할 것처럼 느낀다.			
31. 우리 부모님은 집안에서 서로에게 자주 잔소리와 불평을 하신다.			
32. 우리 부모님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시는 적이 거의 없다.			
33. 우리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잘못 했을 때 가끔 다투시게 된다.			
34. 우리 부모님은 다투시는 중에 물건을 부수거나 던진 적이 있다.			
35.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에도 서로에게 다정하시다.			
36.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에게도 소리를 지르실까 봐 두렵다.			
37.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 내 탓이라고 하신다.			
38. 우리 아버지는 엄마와 다투실 때 내가 아빠 편을 들기 원하신다.			
39. 우리 부모님은 다투시는 도중 서로 밀치거나 떠민 적이 있다.			
40.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내 기분이 나아지도록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41.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실까 봐 걱정한다.			
42. 우리 부모님은 다투고 난 후에도 서로에게 나쁘게 하신다.			
43.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보통 그것은 내 탓이 아니다.			
44.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 내가 말하는 것은 전혀 듣지 않으신다.			

◆ 사회적 능력 설문지

▶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절대 보여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대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조금 무리가는 일도 끝까지 하려고 노력한다.					
2. 나는 힘에 벅찬 일이라도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해결한다.					
3. 나는 친구들과 놀 때 자주 대장 노릇을 한다.					
4. 나는 나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기분이 상한다(속상하다).					
5. 나는 선생님께 애정 표시하기를 좋아한다. (편지나 선물)					
6. 나는 다른 아이들이 그들 생각대로 뭔가 하려고 하면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					
7. 나는 다른 아이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					
8. 나는 다른 아이가 하는 행동에 따라 한다.					
9. 나는 선생님의 손을 잡거나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자주 한다.					
10. 나는 다른 아이에게 나를 잘 따르지 않으면 하던 놀이를 그만 둔다.					
11. 나는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12. 나는 다른 아이에게 게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13.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금방 울거나 당황해진다.					
14. 나는 다른 아이들이 이야기 할 때 말참견을 한다.					
15. 나는 일을 시키면 적극적으로 한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6. 나는 선생님의 기분이 나빠 보이면 걱정스러워하거나 다가가 친절하게 군다.					
17. 나는 누군가가 나의 행위를 흠집하거나 바로 잡아 주려고 하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화를 내거나 토라지거나 시무룩해진다.)					
18. 나는 실제로 하는 방법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지시해도 잘 이행하고 행한다.					
19. 나는 커서 무엇이 될지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하다.					
20. 나는 선생님이 지시하면 알아듣고 그대로 행한다.					
21. 나는 자주 깜짝 놀라거나 당황한다.					
22. 나는 친구들과 놀 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23.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결정한다.					
24.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 여럿이 함께 하는 활동을 먼저 주도한다.					
25. 나는 친구들과 놀이를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					
26. 나는 선생님 곁에 있기를 좋아한다.					
27. 나는 다른 아이에게 욕하거나 악울리기를 좋아한다.					
28. 내가 어떤 생각을 제안하면 다른 아이들이 나를 따른다.					